

새총재 뽑지 못한 프로축구연맹…숙제만 남았다

사커 토막

‘K리그 상품성·마케팅능력 부족’ 현실 직면
프로축구계 통합과 화합 분위기 조성 과제

제11대 총재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문선(59) 후보가 과반득표에 실패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권오갑(66) 현 총재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신임 총재 선출이 물 건너 가면서 권오갑 총재가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돼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총재 선출 실패에서 드러난 냉혹한 현실

2013년 추대 형식으로 취임한 권오갑 총재는 그동안 승강제 정착, 구단별 연봉·임장권 객단가 등 각종 지표 공개, 심판 비리 최소화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잖은 일을 했다. 더욱이 자신이 사장을 지낸 현대오일뱅크가 K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말도복 하는 등 연맹의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권 총재는 바쁜 회사 일정을 이유로

역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총재	재임기간	
정몽준(전 대한축구협회장)	1994~1998년(1~4대)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1998~2004년(5~6대)	
곽정환(전 통일그룹 회장)	2005~2010년(7~8대)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2011~2012년(9대)	
권오갑(현대중공업 부회장)	2013년~현재(10대)	

총재 연임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 일찌감치 여러 기업구단주들에게 총재를 맡아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대답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경제 전반의 상황이 여의지 않아 권 총재처럼 타이틀 스폰서를 유지해 1년에 40억원 안팎, 4년간 16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곤경에 처한 기업구단주들은 연맹 총재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다.

한 축구인은 “권 총재에 이어 연맹을 맡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프로축구의 현실이 암울하다는 증거”라고 한탄했다. 연맹 총재라는 상징성 큰 자리가 ‘기피직책’이 될 정도로 국내축구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신문선 후보가 낙선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타이틀 스폰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

시하지 못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던 A구단 사장의 말처럼 ‘돈을 만들어내지 못할 인물’이란 평가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케팅 등 자체 능력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 총재 개인의 능력으로 타이틀 스폰서를 확보해야 할 만큼 K리그는 상품성도, 마케팅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신문선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B구단 사장은 이런 말을 했다. “각 구단이 현 연맹 집행부에 갖고 있는 반감이 적지 않다. 제대로 능력 있고, 역량을 갖춘 후보가 나온다면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현 집행부가 연맹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적잖은 성과를 일군 것도 사실이지만, 심판매수 파문을 일으킨 전북현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에서 드러나듯 한계도 분명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프로축구계는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기업구단과 도시민구단, 클래식(1부리그) 구단과 챌린지(2부리그) 구단 사이의 해묵은 앙금이 표출되기도 했다. 프로축구계가 통합과 화합을 이룰 재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도 필요하다. 이 역시 향후 연맹의 큰 과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낙선한 신문선 “선거 결과 승복…재출마 고민”

“투표 결과 받아들이겠다. 재출마는 고민해 보겠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1대 총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던 신문선(59)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선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지지 않았다. 내가 받은 5표는 프로축구 발전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 교수는 “평생 축구를 해왔고 결과에 승복해왔다. 오늘(16일)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선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여부를 묻는 선거였지만, 등록도 하지

않은 후보와 싸우는 희한한 경험을 했다.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전 권오갑 총재가 대의원들에게 ‘신 후보가 150억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더라. 그러면 선거를 왜 하는가. 앞으로 연맹을 지켜보겠다. 승부조작을 하는 리그가 아니라 건강하고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축구가 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재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고민을 해보겠다. 공식적인 제소도 내가 살아왔던 철학과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번(선거)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며 “오늘 나온 5표가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출마 여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신 교수의 낙선으로 새 총재 선출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임재동 변호사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큰 틀의 규정은 있지만, 아직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당장 세부 규정을 만들어 선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이른 시일 내로 다시 공고 절차를 밟아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차기 총재 선임 시까지는 (연맹)규약에 따라 권오갑 현 총재가 직무를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제11대 총재선거에선 단독 출마했던 신문선 후보가 낙선하면서 연맹의 취약한 재정 자립도와 구단간 불화 등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마친 신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K리그 구단대표 등 선거인단 23명 모두 투표

현장 리포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17 K리그 정기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선 제11대 총재선거가 치러졌다. 단독 출마한 신문선(59)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찬반투표였다. 선거인단은 K리그 21개 구단 대표와 대한축구협회 2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장은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축구관계자들 및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투표는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10분여간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었다. 회의실로 들어선 신 후보는 각 구단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신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비리근절, 경영 경영성 확보, 챌린지(2부리그) 구단의 자생력 확대, 수익분배를 통한 동반성장, 중계권 가치 상승 및 판매 확대, 구단의 재

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제도 마련 등 자신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거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승부조작, 심판매수, 만성적자, 특정세력에 좌우되는 현재의 프로축구시대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축구로 확 바꾸겠다.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뛰겠다. 또 투표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견 발표를 마쳤다.

투표는 제주 유나이티드, 강원FC, 경남FC, 광주FC, 대구FC, 대전 시티즌, 부산 아이파크, 부천FC, 상주상무, 전북현대, FC서울, 성남FC, 서울이랜드, 수원삼성, 수원FC, 안산 그리너스, FC안양, 울산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포항 스틸러스, 대한축구협회(김호곤 부회장·안기환 전무)의 순으로 진행됐다. 곧이어 개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5, 반대17, 무효 1표였다. 연맹은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받지 못한 신 후보는 낙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레알 마드리의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 끝)가 16일(한국시간) 벌어진 세비야와의 2016~2017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원정경기 도중 마음먹은 대로 안 들어가지 지퍼문 표정을 짓고 있다. 세비야(스페인) | AP뉴시스

레알 마드리드 무패행진, 40경기에서 멈추다

호날두 PK골…세비야 원정 1-2 역전패

레알 마드리드가 41경기 만에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일(한국시간)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비야와의 2016~2017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원정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 역시 세비야를 상대로 한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16강 원정 2차전(3-3 무)에서 스페인 클럽 최다인 40경기 무패행진(30승10무)을 달성했으나, 신기록 작성 직후의 경기에서 털미를 잡히고 말았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보유한 43경기 무패의 유럽기록 도전에도 제동이

걸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4월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1차전에서 볼프스부르크(독일)에 0-2로 패한 이후 9개월간 패배를 잊고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후반 22분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40분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한 데 이어 종료 직전 세비야 스테판 요베티치에게 역전골을 내주고 무패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12승4무1패(승점 40)로 선두를 지켰으나, 한 경기를 더 치른 2위 세비야(12승3무3패·승점 39)와 3위 FC바르셀로나(11승5무2패·승점 38)의 협공에 직면하게 됐다. 서대원 기자 seody3062@donga.com

맨유, 리버풀과 1-1 무승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6일(한국시간) 올드 트래포드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홈경기에서 숙적 리버풀과 1-1로 비겼다. 9연승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1승7무3패(승점 40)로 6위, 리버풀은 13승6무2패(승점 45)로 3위를 지켰다. 21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답게 두 팀은 공방을 벌였다. 리버풀은 전반 26분 폴 포그바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제임스 밀너가 성공시켜 리드를 잡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반 39분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헤딩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브라히모비치는 리그 14호 골로 디에고 코스타(첼시), 알렉시스 산체스(아스널)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다.

편지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선수 평균 연령 25.5세 ‘젊은 분데스리가’

할로 분데스리가

독일축구 2000년 이후 유소년정책 공들여
필러·크로스·외질 등 황금세대 구축 밀거름
각국 유망주도 펠 기회 많아 매력적인 리그

세계 평균연령 순위 3위(2015년 기준 46.2세)로, 유럽국가들만 놓고 보면 노령화지수가 제일 심한 나라는 단연 독일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축구에서만은 반대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리그로 인식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독일 분데스리가(1부리그 기준) 소속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5.5세다. 유럽리그들 중 빅5라 할 수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7.2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26.9세), 이탈리아 세리에A(26.7세), 프랑스 리그앙(25.8세)과 비교해도 가장 젊다. 지난 5년간의 평균연령을 살펴봐도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젊다.

흥미롭게도 현재 들풍을 넘어 우승경쟁을 펼치고 있는 라이프치히는 평균연령 24.3세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어린 팀이다. 그러나 11승3무2패(승점 36)로 바이에른 뮌헨(12승3무1패·승점 39)에 이어 당당히 2위를 달리며 영파위를 과시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은 평균연령 27.2세로 가장 나이 많은 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평균연령과는 같다.

물론 젊은 선수들만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여타 리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분데스리가에선 유독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독일축구협회는 2000년 이후 유소년정책에 공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4브라질월드컵 우승 주역인 토마스 뮐러(28·바이에른 뮌헨), 토니 크로스(27·레알 마드리드), 메수트 외질(29·아스널) 등 황금세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르로이 사네(21·샬게→맨체스터시티), 율리안 드라슬러

(24·볼프스부르크→파리 생제르맹) 같은 젊은 파들도 비싼 가격에 이적하며 독일산 선수들을 향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독일의 유소년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요슈아 키미히(22·바이에른 뮌헨), 세르주 나브리(22·브레멘) 등 아직도 젊은 선수들은 차고 넘친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유망주들 가운데서도 독일무대를 원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는 각국의 내로라하는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했다. 프랑스 유망주 오스만 디렐레(20)부터 스페인의 미켈 메리노(21), 덴마크의 엠메 모르(20)까지 데려왔다.

지난해 키커지에선 ‘프리미어리그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은 그런 면에서 수준도 높으면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어린 선수들도 능력만 있으면 활약할 수 있기에 좋은 무대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폐쇄정책이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로 극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유망주들에게는 분데스리가가 더욱 매력적인 수밖에는 없다.

세계화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최근 세계는 급격한 패쇄적 흐름으로 치닫고 있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나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 같은 이른바 ‘신계’로 불리는 스타는 없어도 독일축구는 ‘팀 정신’ 아래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이미 다인종국가다.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축구에서만은 어느 나라보다 잘 보장돼 있다. 비록 난민정책으로 인해 유럽 전역이 소란스럽지만, 독일축구국가대표팀에서도 볼 수 있듯 이미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선수들이 섞여있는 곳이 독일이다.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혈통에 대한 고집을 포기하면서 그들은 젊어질 수 있었고, 통합을 통해 축구를 발전시켰다. 여전히 융통성 없는 나라라는 편견도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열려있는 나라가 독일인지도 모르겠다.

필터(독일) | 윤영진 통신원